**課題文⑥ ５年生以上**

**청개구리**

옛날 어느 마을에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에 언제나 반대로만 행동하였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개구리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냇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청개구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실 냇가에 묻히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냇가에 묻으라면 반대로 산에 묻을 테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왔습니다. 냇가에 물이 불어나자, 청개구리 어머니의 무덤은 그만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슬피 울게 되었답니다.

アマガエル

昔、ある村にアマガエルが住んでいました。このアマガエルはお母さんの言葉にいつも反対に行動しました。東に行きなさいと言われたら西へ、西と言われると東へ行きました。そんなある日、アマガエルのお母さんが死ぬ前に「いにめてほしい。」とを残しました。

アマガエルは今までお母さんの言うことを聞かなかったことをしました。だから今度はお母さんの最後の通りにいにめました。

しかし、お母さんは本当はいにめてもらうことを望んでた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いにと言うと山の方にめるだろうと思い、わざとそう言ったのです。

数日後、大雨がりました。川の水が増え、アマガエルのお母さんのお墓は流されてしまいました。その後アマガエルは、雨がる度に悲しく泣くようになりました。